

2015 기상청 7급 문제 해설과 총평

제공 : 유두선 교수

1. 내용일치 문제는 답지의 핵심어를 먼저 표시한 후에 지문을 읽으면서 확인하자 ①은 2~3줄에 ②는 소유주만 청구권을 갖고 있으므로 일치하지 않는 내용이다. ③ 밑에서 4째줄에서 확인 ④ 밑에서 2째줄에서 확인

정답 ②

2. (독음) 학자선무/막절어의리지변/사육지맹/개출어이/종염두/발거근본/연후가안어학의

(해설) 배우는 자가 먼저 힘쓸 것은 의와 이를 분별하는 것보다 절실한 것은 없다. 사사로운 욕심이 싹트는 것은 모든 이에서 나오므로 생각의 첫머리부터 뿌리째 뽑아 없앤 연후에야 배움에 편안히 머무를 수 있다.

정답 ③

3. 단락순서 문제는 인접단락을 먼저 찾아보자

(나) 근대성은 권력의 시선을 숨긴다고 했다.

(가) 이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시선과 연결

(마) 예

(라) 시선은 권력이다. 끝에 ‘뿐만 아니라고’했으니 뒤에 같은 내용인 (다)가 와야 한다.

정답 ①

4. ‘시부저기’는 별로 힘들이지 않고 거의 저절로라는 의미다.

정답 ①

5. ④ 의문형 종결어미 ‘흐시니잇고’에서 의문형 종결어미 ‘잇고’가 생략되어 있다.

정답 ④

6. ㉠은 교체, ㉡은 동화, ㉢은 축약과 탈락

㉠ 첨가 ㉡ 동화 ㉢ 축약 ㉣ 교체

정답 ④

7. 주어진 작품에는 도학을 즐기거나 강호가도를 구현하는 내용이 없다. 자기의 학문적 능력을 자랑하는 사대부의 긍지를 보여 주고 있다.

정답 ④

8. ① ‘난마’는 갈피를 잡기 어렵게 뒤엎힌 일이나 사태를 뜻하므로 내용에 어울리지 않는다. ② 신문에 실리는 것은 게재(揭載)를 쓴다. ③ ‘부토(扨土)’는 한 줌의 흙이란 뜻이다. ‘한 움큼’과 중복되었다.

정답 ④

9. 사랑하기는 하지만 사랑을 성취하지 못하는 화자는 소주를 마시며 마음을 달래고 있다. 세상의 슬픔과는 관계 없다.

정답 ③

10. 먼저 답지의 핵심어를 파악한 후에 지문을 읽으면서 답지와 비교해 본다. ①의 내용은 본문에 없다. ②는 첫째 단락 마지막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다. ③은 3~4째 줄에 있다. ④는 밑에서 4째줄에 있다.

정답 ①

11. (다) 투명한 커뮤니케이션을 실현하려 하나 -> 자신에게도 투명하지 않다. (가) 인간은 자신에게도 투명해질 수 없다. (라) ‘가능하다 해도 가치가 없다.’가 (가)와 연결 (라)의 섬세함과 (나)의 섬세함이 연결

정답 ③

12. ③ ‘어린이’와 ‘안팎’은 통사적 합성어이다. ②에서 ‘등산’은 ‘산을 오르다’ ‘독서’는 ‘책을 읽다’로 우리말 어순이 다르다. 그리고 ‘설익다’는 파생어이지만, ‘어미’가 없는 비통사로 볼 수도 있다.

정답 ③

13. 탈속한 삶을 지향하는 화자의 정서를 보여 주고 있다.

정답 ③

14. (다)는 조선 초 (나)는 단종 (가)는 사설시조는 임란 후의 작품으로 볼 수 있다.

정답 ④

15. 보기에서 ‘다른’은 관형사 ① 관형사 ② 형용사 ③ 형용사 ④ 형용사

정답 ①

16. 자기 몸이 호접(나비)되어 오고 가고 하겠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을 비유법을 통해 마음을 표현한 것이다.

정답 ①

17. ㉠ ‘재원’은 여자를 뜻한다 ㉡ 양을 뜻할 때는 ‘적지만’을 쓴다.

정답 ①

18. ② 맨해튼 ③ 징기스칸 ④ 요구르트

정답 ①

19. ① 부는지 ③ 집채만 V 한 ④ 못다 V 한

정답 ②

20. 인물의 이름이 제시되었고 그의 심리도 표현되어 있으므로 3인칭 전지적 시점이다. ① 3인칭 관찰자 ③ 1인칭 주인공 ④ 1인칭 관찰자

정답 ②

총평

문법 9문항, 독해 4문항, 문학 5문항, 한자 2문항이 출제되었다. 특히 독해 지문이 길어서 수험생에게 많은 부담을 주었을 것이다. 문법 총 9문항 중에서 2문항은 고전 문법이 출제되었고 전반적으로 까다로운 편이다. 문학은 시 2문항, 소설 1문항, 고전문학 2문항으로 다양하게 출제되었고 한문 문장의 빈칸 채우기 문제는 아주 어려웠다.